

Merck, 신임사장 레크만 박사 취임

Merck Advanced Technology 사장 겸임 ... 본사 전략적 혁신 총지휘

액정을 비롯한 화학제품과 고혈압, 당뇨, 항암제 등 의약품을 주력 생산하고 있는 독일 Merck의 한국지사인 Merck와 Merck Advanced Technology의 사장으로 베른트 레크만 박사가 취임했다.

이·취임식은 독일 본사의 화학그룹부문 총 책임자이며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Exactive Board 멤버인 슈레큰바흐 박사와 후임자인 발터 지보텍 박사의 한국방문에 맞추어 함께 이루어졌다.



한국은 Merck의 8대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위해 Merck가 노력한 맥락에서 한국의 신임 사장과 본사의 보드멤버가 함께 정식으로 취임인사를 준비했다.

Merck는 취임식에 약 90명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초청해 전임자와 후임자가 함께 Merck 비즈니스 성과와 미래전략에 대해 글로벌 부문과 한국부문으로 나누어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성공의 의지를 피력했다.

베른트 레크만 박사는 1986년 Merck그룹에 들어와 한국으로 부임하기 이전까지 Merck그룹의 전략적 혁신 프로젝트를 지휘했으며, 화학 비즈니스 운영부문 보드멤버이며 생명과학사업부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Merck는 신임사장의 부임을 통해 앞으로 세계적인 의약, 화학 기술을 가지고 혁신을 이끌어가며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고객과 직원들의 지속적인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내에는 1989년 설립된 Merck와 2002년 설립된 Merck Advanced Technology가 있으며 의약과 액정, 안료 그리고 생명공학 및 시약과 같은 화학분야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또 1999년에는 심혈관 및 대사질환을 위한 전문의약품, 제네릭스 그리고 일반의약품에 집중된 제약 사업조직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9/28>